

# 21세기 복식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 연구

-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을 응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안 소 영\* · 유 송 옥\*\*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명예교수\*\*

## A Study on the Ethnic Style Designs which is Expressed in 21th Century Fashion

- Focused on the Fashion Design Applying the Mongol Noin-ula's Textile Pattern-

So-Young Ahn\* · Song-Ok Ryu\*\*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3. 10. 7 투고)

## ABSTRACT

The culture interest regarding the new area causes an effect even in change of fashion and that result Mongol area where it is area other than Japan, China and India and it is having compromised beauty raised it's head.

Mongol is in Noin-ula area which is a it's former self of the Hun's. There is to a textile pattern which was used not only the textile pattern which has the feature of Scythian system but also the textile pattern which has the feature of China was used.

The feature of Noin-ula's the textile pattern is as follows.

Noin-ula's textiles used Scythian system of animal pattern, vine pattern, palmette pattern, thunder pattern, spiral pattern, shape of diamond pattern. Scythian system of animal pattern and vine pattern proves the interchange with the countries to the west of China.

Noin-ula's textile pattern is applied to the designer's work of art. The designers are John Galliano, Etro, Chloé, Emmanuel Ungaro and so on, who express the modern ethnic style design.

Because the more developed the modern society is the more embossed feature of intention for the race and the folk art, I think that Ethnic style design is applied to modern sensitive and ethnic style in the future.

Key words: Mongol(몽고), Noin-ula(노인우라), Scythian system of animal pattern(스키타이계 동물문양), ethnic style design(에스닉 스타일 디자인)

## I. 서 론

세계 각국의 민속복식은 복식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하나의 풍요한 자원이다. 세계의 국제 정세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의 민속복식이 세계 유행에 영향을 미쳤던 예는 많았다. 인류의 근원을 찾는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각 문화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민속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되면서 패션 테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민속적 경향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스타일은 1980년대 이후에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확립된 양식들이 붕괴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의 성격을 가지며 과거의 형식을 소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양식이 두드러지며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고방식이 세워 놓은 엄격한 지배의 틀을 거부하는데 특징이 있다<sup>1)</sup>고 하겠다.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스타일 역시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원화, 절충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3국의 복식양식을 현대풍으로 재현시킴으로서 하나의 절충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양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다른 이질적인 동양취미의 등장으로 자기 나라나 민족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풍물과 정서를 동경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예술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가리켜 이국 취향(Exoticism)<sup>2)</sup>이라 한다. 이런 이국취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에스닉 스타일로 서양문화에 주기적으로 부활되고 있고 또한 이를 자국의 복식과 융합된 새로운 스타일로 선보이는 것이 패션계에 또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 현재 세계의 문화적 관심지역으로 대두된 몽골 지역의 문화를 통해 몽고 노인우라(Noin-ula)에서 발굴된 다양한 직물에 사용된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몽골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을 응용한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에 대해 현재 파리와 밀라노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시대적 범위는 몽고 노인우라(Noin-ula)의 유물이 혼존했던 시기인 B.C. 1C~3C로 하였으며, 지역적 범위로는 몽고 노인우라 지역과 여기서 출토된 유물에 영향을 준 중국과 스키타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정한다.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을 응용한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에 대해서는 2002 S/S부터 2003 F/W에 파리·밀라노·뉴욕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관련 서적 및 사료를 통한 기록과 몽골 방문을 통해 수집한 사진 자료와 유물 사진 자료를 중심하며,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 모티브가 응용된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에 대해서는 2002 S/S부터 2003 F/W의 파리·밀라노·뉴욕 컬렉션이 수록되어 있는 패션잡지와 인터넷 사이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몽골 노인우라의 유물이 매우 소량이며 노인우라의 전신인 몽골의 정치 역사상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로 19세기 이전의 유물에 관해서는 보존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이에 대해서 발행된 서적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한정된 자료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II. 몽고 노인우라(Noin-ula) 직물 문양의 특징

1925년 러시아의 고고학자 카즐로프(1863~1935)는 외몽고지방 하라강(江) 부근의 노인우라(Noin-ula) 산(山)에서 알타이산지의 고분과 상당히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한 흉노(匈奴)의 고분을 발굴하였다. 노인우라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스키타이, 페르시아와 가까운 점 때문에 노인우라의 출토품에도 이 지역들과의 공통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꽤 많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유해(遺骸)와 두발(頭髮)의 분석을 통해서 유품을 비교하면 이 노인우라 고분의 피장자(被葬者)는 인종적으로는 몽고로이드계인 것

이 증명되었으며, 알타이 고분의 출토 유품에 페르시아의 영향이 농후한 것에 비하면 노인우라의 유품에는 전국(戰國)시대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는 중국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 복장 유품에 관해서도 알타이가 중앙아시아적인 것에 비해 노인우라는 동아시아적인 것을 들 수 있다<sup>3)</sup>. 노인우라는 몽고어(蒙古語)로 ‘귀족의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는 데<sup>4)</sup>, 다수의 부장품(副葬品)이 대부분 남성용이므로 부장된 이 묘실의 주인공은 흉노왕(匈奴王)으로 추측하고 있다.

노인우라의 직물 유물에 보이는 문양의 모티브로는 유목민족에 공통되는 소, 말, 양, 호랑이, 사자 등의 동물문양 외에 당초문(唐草文), 사엽좌(四葉座), 팔메트(palmette)문양, 수목(樹木)문양 등의 식물문양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묘실의 벽걸이와 모전(毛氈) 등에 자주되어 있는 문양으로는 스키타이풍의 유익룡(有翼龍)이나 그리핀 등 괴조문(怪鳥文)이 많았으나, 중국에서 보낸 견직물의 자수문양은 화조문(華鳥文), 쌍금문(雙禽文), 만초문(蔓草紋) 등 중국식 문양이 많았다. 이들의 자수품은 노인우라 현지에서 가공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중여품 또는 교역품으로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라 생각 된다<sup>5)</sup>.

## 1. 모직물(毛織物)의 문양

노인우라 고분에서 복식과 함께 발견되어진 직물관련 유물 중 가장 주목되었던 모전(毛氈)은 원래 실내에 깔았던 양탄자이다. 모전은 내곽(內廓) 바닥에 깔고 위에 관(棺)을 올려둔 커다란 것인데 대부분 단편 조각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중 제6호 고분의 내곽에 깔아둔 것은 비록 파손은 되었지만 다행히도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외실(外室)에 깔았던 것도 남아있는 부분이 보존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본래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제6호 고분의 묘실 내외(內外)에 깐 깔개들은 모두 낙타의 털로 만든 두께 1~2cm의 모전(毛氈)<sup>6)</sup>이다. 내곽의 모전은 길이 261cm, 폭 약 163cm 정도의 크기이며, 모전 둘레에는 약 12cm폭의 능형쌍봉황문(菱形双鳳凰紋)을 넣어 직조한 금(錦)으로 액자처럼 가장자리에 띠가 둘러져 있다. 바깥부분은 중앙에 길

이 약 180cm, 폭 약 74cm의 중요한 부분에 평견(平絹)을 깔고, 가장자리의 띠와 이 구간사이에는 홍차색 등으로 염색한 모직포를 두고, 붉은색 연사(燃絲)로 모전 중앙에 S자형 모양으로 이어진 선을 중심으로 연속해서 누벼 만든 둥그런 소용돌이 모양인 와문(渦文)으로 장식되어 있다. 양탄자 둘레에도 격자모양으로 된 기하학적 문양이 모전에 봉제되어 이어붙여져 있다. 이 두 개 모두 경계에 폭 5cm 내외의 별도로 만든 모자이크 형태의 자수 문양 띠를 붙이고 양탄자 둘레의 모직포 위에 같은 기법으로 커다란 괴수문양인 스키타이계 동물문양과 수목문양을 아플리케 모자이크 기법(appliquéd mosaic work)으로 모전에 붙였으며, 스키타이계 동물문양을 바깥쪽에서 볼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완성하였다

<그림 1>

노인우라 고분에서 발견된 직물 유물 중 모직물에 사용된 자수문양으로는 위에 언급한 스키타이 동물문양 이외에도 와문(渦文), 팔메트(palmette)문양, 능형문, 보상화문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1> 노인우라의 모전(毛氈)  
(蒙古 ノイン・ウラ 発見の遺物, 도판 15)

## 2. 금류(錦類)의 문양

노인우라 고분에서 출토된 직물류에는 금류(錦類)가 있으며 그 용도를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용도를 알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출토되었으며, 이 금류는 중국 한(漢)에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발달한 견직물 가운데 금류는 옛부터 양읍(襄邑)의 직물로 알려져 있다. 한대(漢代)의 직물

중에서도 금(錦)은 특히 쇠고라 하여 촉(蜀)에서 짠 촉금(蜀錦), 하남성의 양읍(襄邑)에서 짠 진유금(陣留錦) 등이 귀중하게 여겨졌다<sup>7)</sup>. 한대(漢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 예로서 1914년 중앙아시아의 루란(樓欄)지방에서 당대의 고분이 조사되었을 때 발견되어진 것이 효시로 당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이 노인우라의 금류(錦類)는 루란지방의 금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사로 아름다운 자수문양을 놓은 앞선 기술의 것으로 대부분의 문양이 당대 장식무늬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문자까지 자수하여 하나의 완성형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우라의 금류는 한(漢)의 황제가 흥노왕(匈奴王) 선우(單于)에게 사여한 것도 많으나 그 중에서는 약탈품이나 교역품도 있었을 것이며, 어쨌든 한대의 제품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것은 그 묘실 자체의 구조가 한대의 고분과 매우 비슷하듯이 흥노의 전신인 노인우라 그 자체의 문화도 한대 중국문화의 압도적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흥노문화의 모든 것이 한문화인 것은 아니며 스키타이계 동물문양을 비롯하여 인동문양, 팔메트 문양, 능형문 등을 보면 스키타이에서 알타이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목문화와 그리이스나 페르시아의 서방문화와의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우라의 금류에 사용된 문양으로는 산형뇌문(山形雷紋)과 와문대(渦紋帶), 능형문(菱形紋), 당초문양, 인당동당초문양 등이 있다.

### III.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의 개념

에스닉(Ethnic)이란 '민족의', '종족의' 또는 '민족특유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에스닉 스타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 고유의 복장을 힌트로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족의상 그 자체와 염색, 직물, 자수 등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포클로어(folklore)가 민속적인 것이라면 에스닉은 좀더 토속적이고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간직된 상태이다. 예를 들면 중

근동(中近東)의 종교적 의상, 잉카의 기하학적 문양, 인도네시아의 바틱(Batik), 인도의 사리(Sari) 등이 에스닉(Ethnic)의 대표적인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에스닉 스타일의 등장은 18세기경부터 유럽 각지의 상류계급사회에서 유행하여 시노와즈리(Chinoiserie), 튀르크(Turquerie), 제포니즘(Japonism) 등으로 일컬어지면서 복식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양한 민족의 민속의상이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이 존재하는데 그 중 스키타이 스타일도 에스닉 스타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복식 형태나 직물 문양이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몽고 노인우라에서 나타나는 스키타이계 동물 문양은 스키타이나 페르시아에서 장신구 문양으로 주로 사용된 것에 반해 노인우라에서는 직물의 자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노인우라 고분에서 발견된 직물류의 직조 기술은 시기적으로 보아 노인우라 자체의 생산품이라기보다는 한(漢)과의 교역이나 증여품으로 유입된 것으로 중국 한대(漢代)의 기술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노인우라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 스키타이와 그리 멀지 않은 절충적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우라 복식이 북방 스키타이계 복식이라는 공통의 원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직물 문양이나 직조기술에서도 영향을 받거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의 모티브로서 민속복식은 특정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담고 있는 의복이므로 그 지역 고유의 풍속, 풍습, 문양, 소재, 기술 등이 나타나 있으며 민속집단의 독자성을 외계에 나타내 주는 표상(表象)으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고찰은 민속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켜 줄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 디자인에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들이 21세기 현대 복식에 새로운 패션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 IV.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 모티브를 응용한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 연구

1990년대 후반에는 뉴미디어가 널리 보급되어 전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시장과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전 세계인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문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동형화(動形化)하는 한편,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컴퓨터의 멀레니엄 버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혼란들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문화권에 있는 여러 나라의 스타일이 동시에 혼합되는 다민족적 에스닉 스타일이 등장하여 보편화되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는 문화적 요소를 지닌 지역으로 '몽골'이 있다.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합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는 몽골의 문화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에트로(Etro), 엠마누엘 용가로(Emmanuel Ungaro),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등의 컬렉션에서 그 직물문양의 모티브뿐만 아니라 무대의 연출까지도 몽골과 같은 동양과 서양의 결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모티브를 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에스닉은 몽고와 티벳 지역의 유목민들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권이 믹스·매치된 럭셔리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모던 에스닉 스타일은 의상전체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주로 스카프, 벨트, 자수 등과 같은 부분적인 요소로 표현되었다<sup>8)</sup>. 2002 F/W Paris · Milan collection에서의 포클로어 패션(folklore fashion)이 몽골, 티벳,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한 무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3 S/S collection에서는 치파오, 기모노, 한복의 절제된 라인과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를 응용한 오리엔탈리즘의 무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sup>9)</sup>. 2003 S/S Paris · Milan collection의 트랜드도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전통 문양

과 의상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본 장(章)에서는 21세기 패션에 표현된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 모티브가 응용된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에 대해 Paris와 Milan · New York collection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스키타이와 서역의 영향을 받은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류에 사용된 문양으로는 스키타이계 동물문양, 당초문양과 팔메트(palmette)문양, 와문, 뇌문, 능형문 등 다양한 문양이 많이 보인다.

이 문양들 중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은 노인우라 모전에 사용된 스키타이계 동물문양은 직물에 사용된 것으로는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당초문과 팔메트 문양은 그리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문양이다. 이들 문양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에 응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스키타이계 동물문양

스키타이 동물문양이 사용된 노인우라의 유물로는 <그림 1>에 있는 것처럼 묘실의 꽉 차는 정도의 넓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모전(毛氈)이 있으며, 또 그 밖에 내곡(內襟)에 접한 부분의 조각들도 있다. 외실(外室)의 깐 것은 평면에 그대로 응용한 형태이며 내외(內外)에 동일한 금(錦)으로 가장자리 띠를 두르고 내측(內側)에 장식 띠를 첨가하여 자수를 놓은 괴수문양은 모전 내외의 두 띠가 각각의 옆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제6호분에서 발견된 모전(毛氈)에 나타난 스키타이계 동물문양은 교대로 두 가지 종류의 동물을 나타낸 것으로 서로 짜우고 있는 스키타이계 동물 문양 중간에 한그루의 나무가 있다. 주요한 동물무늬 중 하나는 날개달린 고양이과 동물인 그리핀(griffin)이 큰 뿔이 달린 순록인 엘크(elk)의 등을 물어 공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공격하는 그리핀과 도망가려고 피로 위하는 엘크의 표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두 개 모두 모전 둘레에 그려진 주요한 문양 형태는 각각의 문양 윤곽을 잘 나타내기 위해 꾼 실로 가장자리를 두

르고, 색사(色絲)로 누벼 모자이크 풍으로 가득 메워 나타내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다른 방향의 무늬도 마찬가지로 동물이 서로 싸우는 그림으로 이 방향의 무늬는 꼬리가 가늘고 긴 괴수(怪獸)인 야크(yak)에게 뿐이 있는 황소이거나 사자로 보이는 짐승이 머리를 숙인 채 상대편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양은 아시아 대륙 북부 출토의 장신구에 자주 보이는 디자인으로 황소이거나 사자인 것처럼 보이는 동물 등에 뾰족한 벼슬과 같은 특수한 부분을 침가한 것은 시베리아 지대에서의 두드러진 모티브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이 두 문양 모두 스키토·시베리아 예술 디자인을 잘 나타내고 있다<sup>10)</sup><그림 2>.



<그림 2> 노인우라 제6호분 출토 모전(毛氈)에 자수된 스키타이계 동물문양(蒙古ノイン・ウラ 発見の遺物, 도판18 · 도판16)

몽고 노인우라 모전에도 사용된 큰 뿐의 순록으로 표현된 사슴문양은 스키타이와 흥노를 비롯한 유목 기마민족의 문물에 표현된 동물의장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서쪽의 다뉴브(Danube, 드네프르) 강에서 동쪽의 중국 동북일대에 이르는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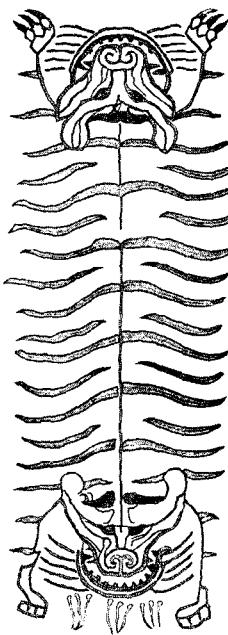
초원예술은 주변의 정주민(스키타이와 앗시리아·아케메네스, 흥노와 중국)들의 예술과 상호 공유하고 있는 사냥이나 동물이 싸우는 장면 등과 같은 데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앗시리아인과 아케메니스인은 한대(漢代)의 중국인들처럼 단순하고 넓은 배경에서 서로 쫓고 쫓기며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스키타이든 흥노든 초원의 장인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서로 죽을 때까지 물어뜯으며 뒤엉켜 있는 동물의 격투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예술은 표범, 곰, 맹금류, 그리고 그리핀에게 잡힌 말이나 사슴의 찢어진 사지나 완전히

뒤틀린 희생물의 몸뚱이로 표현되는 극적인 예술이다<sup>12)</sup>.

스키타이 문양과 같이 양식화된 동물문양은 2세기 노인우라에서 발견된 흥노 예술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흥노예술을 상기시키는 양식화된 동물문양으로 장식된 청동판식과 칙물조각에는 그리핀과 엘크가 싸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유목 기마민족문화로서 동물의장은 사실적으로 나타났던 동물상이 현저히 양식화되어있는 특징이 있는데<sup>13)</sup>, 양식화된 동물의장이란 동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위해 상징적인 부분만을 혼합하여 만든 동물형태를 말한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동물문양의 상징은 별자리(星座)로서 사자좌는 하지(夏至)이고 양(羊)은 동지(冬至), 목우(牧牛)는 춘분(春分)의 좌(座)로서 사자가 양을 습격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을 의미하며 소와 사자가 같이 묘사된 것은 봄을 맞아 여름이 곧 오리라는 상징이라고 했다<sup>14)</sup>. 이 같은 동물의장의 소재가 동북아시아 초원지대에서는 소와 들양 대신 사슴과 말이 더 활용되었고 사자나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렵의 성공을 기원한 주술적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up>15)</sup>, 사슴의 잦은 등장은 스키타이계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사후세계의 영혼을 인도하는 의미였기에<sup>16)</sup> 풍성한 조형표현의 소재로 썼다고 생각된다.

스키타이 동물 문양을 모티브로 한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은 쉽게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스키타이계 동물 문양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인 사슴이나 사자·호랑이와 같은 동물문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있을 뿐이다. 이런 예로는 클로에(Chloé)의 2003 F/W Paris collection에서 발표된 짧은 쉬폰 드레스<그림 4>에 호랑이 문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이 호랑이 문양은 노인우라의 모직물 자수 피복포의 양쪽 끝에 호랑이 머리가 있는 자수 문양<그림 3>으로 사용된 호랑이 무늬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림 3> 노인우라  
모직물에 자수된 호피  
문양(蒙古ノイン・ウラ  
發見の遺物, p. 68)



<그림 4> Chloé의  
호피문양이 이용된 쉬폰  
드레스, 2003 F/W Paris  
collection(Vogue 5, 2003)

## 2) 당초(唐草)문양과 팔메트(palmette) 문양

당초(唐草)문양은 노인우라의 직물류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 문양으로 당초(唐草), 인동당초(忍冬唐草), 보상화문, 팔메트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인동문양은 넝쿨이 뻗어나가는 문양을 도안화 한 무늬이다. 이 인동덩굴이라는 것은 인동과에 속하는 덩굴진 낙엽(落葉)·활엽(闊葉) 관목 등인데, 잎은 난형(卵形) 또는 긴 타원형이다. 인동문은 처음에는 소위 S자형의 와선이 좌우 또는 종횡에서 연계되기 시작하여 이방연속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시 이것이 사방에 각각 연계되어 사방연속문양이 형성되며 여기에 꽃과 꽃봉오리를 첨가시키면 하나의 인동문양이 완전하게 구성되는 것이다. 식물문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양이 되는 요소와 발전되는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줄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줄기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개의 꽃, 꽃망울, 잎 등이 서로 연결된다. 즉 만초(蔓草)라 하는 것은 줄기가 뻗어나아가면서 끝이 덩굴로 되어 다른 것을 감아 붙이

면서 올라가는 풀을 말한다. 이와 같이 문양을 접속시켜나가는 것과 문양과 문양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을 메워 나가는 것은 이 당초문양을 사용한다. 이런 만초문(蔓草紋)을 총칭하여 당초문이라고 한다. 이 넝쿨이 뻗어나간 형태에 모란, 인동만초, 보상화를 접속시켜 모란당초문, 인동당초문, 보상당초문이 된다!<sup>17)</sup>

이 인동문양은 고대 이집트에서 생긴 것으로, 히랍·로마·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전래된 것이다. 이런 전래 경로를 보면 노인우라의 인동당초문양과 팔메트 문양도 같은 경로를 거쳐 전해진 문양이라 생각되며 노인우라의 직물에서 볼 수 있는 인동당초문양과 팔메트 문양이 사용된 것은 노인우라의 지리적 특징이 반영되어 중국이나 스키타이에서 사용된 문양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들과 사용된 문양의 공통성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노인우라의 유물에 보이는 인동당초문양은 제6호 분 묘실을 넘는 피복포<그림 5>에 양쪽 끝이 둉글게 말리는 문양으로 자수되어 있다. 끝이 말린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된 인동당초문양이 응용된 현대 디자인으로는 2003 F/W Milan Collection에서 발표된 폴 스미스(Paul Smith)의 코트<그림 6>에 소매와 밀단, 칼라 및 앞 여밈단에 붉은색 자수문양으로 인동당초문을 사용하였으며 앞여밈단과 칼라에는 능형문과 함께 사용하여 중앙아시아의 민속복식 느낌의 에스닉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



<그림 5> 노인우라의 인동당초문양이  
나타나 있는 묘실의 피복포  
(墓室上部被覆布華錦紋)(蒙古  
ノイン・ウラ 発見の遺物, p. 69)



<그림 6> 인동당초문이  
자수문양으로 사용된  
Paul Smith의 코트, 2003  
F/W Milan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m>)

보상화문을 응용한 현대 에스닉 디자인으로는 에트로(Etro)의 자켓 뒤 등부분에 아플리케 기법으로 보상화문을 둥글게 연결시켜 배치하여 에스닉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그림 10>.



<그림 7> 노인우라 인마(人馬) 자수 모직물 하단에  
보이는 팔메트 문양(蒙古 ノイン・ウラ 発見の遺物,  
도관 1)

팔메트(palmette) 문양은 당초 문양의 일종으로 로터스 혹은 팔메트라는 식물의 잎 모양을 본 따 만든 문양으로 대부분 인동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다. 팔메트 문양은 노인우라와 고구려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문양으로 노인우라의 인마(人馬) 자수 모직물<그림 7> 하단에 팔메트 문양이 자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팔메트 문양이 응용된 현대 디자인으로는 매튜 월리암스 (Matthew Williams)의 블라우스 자수문양<그림 8>으로 노인우라의 팔메트와 완전히 같은 형태의 문양이 당초문과 함께 사용되어 여성적이면서도 에스닉한 스타일의 블라우스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노인우라의 유물 중 보상화문이 사용된 것은 <그림 9>의 날개를 펼친 주작 무늬 위에 띠모양으로 자수되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 8> 팔메트와 당초 문양을 응용한 Matthew Williams의 블라우스, 2003 S/S New York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m>)



<그림 9> 보상화문이 자수된 노인우라 모직물  
(蒙古 ノイン・ウラ 発見の遺物, 도판 3)



<그림 10> 보상화문을  
응용한 Etro의 자켓, 2003  
S/S Paris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m>)

## 2. 중국 한(漢)의 영향을 받은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문양

노인우라 직물에 나타나는 문양 중 산형뇌문과 와문대, 능형문은 중국 한대(漢代)에서도 사용되었던 문양으로 노인우라와 한대의 교역과 종여로 인한 중국 한대의 영향으로 노인우라에서도 이들 문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한대의 영향을 받은 문양의 형태와 특징과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에 응용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산형뇌문(山形雷紋)과 와문대(渦紋帶)

노인우라의 산형뇌문(山形雷紋)은 제23호 고분에 유존되어 있는 붉은색과 흰색을 교대로 넣어 산모양의 번개무늬를 만들고 갈색으로 간단한 각진 네모형 와문(渦文)의 띠무늬를 넣어 직조한 금류(錦類)에서 나타난다<그림 11>.



<그림 11> 산형뇌문(山形雷紋)과 와문대(渦紋帶)를 넣어 직조한 이색경금(二色絹錦)  
(蒙古 노イン・ウラ 發見の遺物, 도판 47의 上)

이 뇌문은 중국 한대의 직물에서도 사용된 문양으로, 산모양의 뇌문은 현대 디자인에서 기하학적 문양과 같은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에 주로 사용되는 문양으로 산형뇌문을 모티브로 한 현대 디자인으로는 엠파누엘 옹가로(Emmanuel Ungaro)의 니트 디자인<그림 12>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우라의 산형뇌문 아래에 사용된 와문대(渦紋帶)의 직조문양은 에트로(Etro)의 쇼울(shawl) 디자인<그림 13>에 벨벳으로 와문의 크기를 변형한 형

태로 이용되어 에스닉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와문대(渦紋帶)는 2002 S/S Haute couture collection에서 발표된 존 갈리아노의 몽골 나담 축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드레스 디자인<그림 15>에 사용된 직물 문양인 능형문의 가장자리에도 각진 네모형의 와문이 띠모양으로 둘러져 있어 동양 풍의 에스닉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12> Emmanuel Ungaro의 뇌문을  
모티브로 한 니트, 2002 F/W  
Paris collection  
(Vogue 5, 2002)



<그림 13> Etro의 와문대(渦紋帶)가  
응용된 에스닉한 숄, 2003 F/W  
Milan collection(Vogue 5, 2003)

### 2) 능형문(菱形紋-다이어몬드형 문양)

다이어몬드 형태의 능형문은 몽고 노인우라의 자수 모직물과 금(錦)류에 사용되었다.

이 능형문은 노인우라의 능형문은 윗부분에 능형문이 자수되어있고 그 아래에 회전하는 원무늬인 와문이 길게 띠처럼 되어있는 노인우라의 묘실 모직 피복포(被覆布)<그림 8>와 금조능형문금(禽鳥菱形錦)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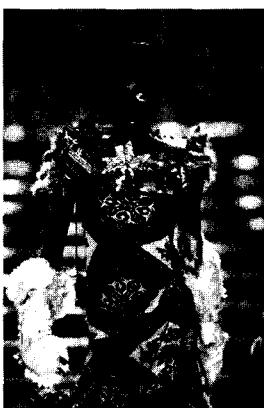
이 능형문은 1972년 호남성 장사의 마왕퇴(馬王

堆) 전한묘(前漢墓)에서 발전된 직물 출토품 중 대조 능문(對鳥綾文)의 기(綺)나 라(羅)에서 사용된 문양이 노인우라의 금(錦)에 조각된 문양과 그 형태가 같다. 그러므로 노인우라의 문양은 한대의 발전된 직조 기술로 짜여진 것으로 한파의 교역과 중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우라의 금류와 모직물에 나타난 능형문은 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능형문을 모티브로 한 현대 에스닉 디자인으로는 2002 S/S Haute couture collection에서 발표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드레스<그림 15>에 봉고 노인우라의 묘실 모직 피복포에 보이는 다이어몬드 형 문양인 능형문이 디자인 모티브로 응용되어 있다. 이 드레스는 능형문의 특징인 기하학적인 현대감각과 더불어 능형문 내부를 채우고 있는 문양이 봉고 지역에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당초문양의 변형된 모습과 같아 에스닉한 스타일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14> 능형문과 와문이 있는 노인우라의 묘실  
피복포(被覆布)  
(蒙古ノイン・ウラ  
發見の遺物, 도판 8)



<그림 15> 능형문을 모티브로 한 John Galliano의 드레스, 2002 S/S Paris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m>)

### 3. 봉고 노인우라의 특징적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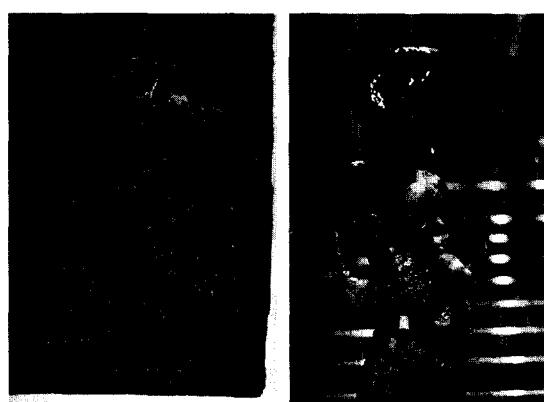
동근 원무늬의 와문(渦文)은 노인우라의 직물에서만 나타나는 문양이다. 와문은 중국에서도 사용된 문양이나 각진 네모형 와문은 사용된 예를 많이 볼 수 있지만 동근 와문은 노인우라에서만 보이는 특징적

인 문양이다.

#### 1) 와문(渦文-회전하는 원무늬)

와문은 회전하는 모양의 원무늬로 봉고 노인우라의 모전(毛氈)<그림 17>의 중앙부분에 체인스티치 기법으로 자수를 놓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인 와문이 있다. 또 노인우라 제6호 분묘 출토 묘실 상부를 덮었던 피복포<그림 14>의 팔메트 문양 띠의 아래와 위에 띠를 두르고 있는 선에도 와문이 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와문은 서로 연결되어있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는 모양이다.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 중 와문을 모티브로 사용한 예를 찾아보면 2002 S/S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에서 발표된 존 갈리아노의 다른 드레스 디자인<그림 17>에서 와문은 노인우라 모전에 사용된 등근 모양의 와문을 크기가 큰 패턴으로 사용하여 대담한 느낌을 주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민속의상의 분위기가 혼합된 느낌의 현대 에스닉 스타일의 드레스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6> 노인우라 모전(毛氈)의 와문(渦文)(蒙古ノイン・ウラ 發見の遺物, 도판 14)  
<그림 17> 와문을 모티브로 한 John Galliano의 드레스, 2002 S/S Paris collection  
(<http://www.firstview.com>)

### V. 결 론

새로운 지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은 패션의 변화에

도 영향을 미쳐 동양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중국·일본·인도 이외의 지역인 동서양의 절충적 미를 가지고 있는 몽골 지역이 관심 지역으로 대두되었다. 이 몽골은 흉노(匈奴)의 전신인 노인우라 지역으로 중국적 영향과 함께 스키타이계 복식 형태나 문양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다.

노인우라의 직물류에서 사용된 문양으로는 모직물에 사용된 문양으로는 스키타이계 동물문양, 산형뇌문, 능형문, 와문, 당초문양과 팔메트문양이 있고, 금(錦)류에 사용된 문양으로는 뇌문과 능형문, 와문 등이 있다.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에 나타난 문양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에 응용된 작품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우라의 고분에서 발견된 직물에 사용된 문양은 북방 스키타이계의 영향을 받은 스키타이계 동물문양과 그리이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팔메트 문양이나 인동당초문 뿐만 아니라 중국 한대(漢代)에서도 사용되었던 뇌문, 능형문, 와문대 등의 문양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스키타이와 페르시아와 같은 서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여 두 지역의 절충지역으로서 노인우라의 지리적 특징이 사용된 문양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노인우라에서만 보이는 등근 와문과 같은 독자적 형태도 나타난다.

스키타이와 그리이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노인우라의 문양으로 스키타이계 동물문양과 당초문양, 팔메트 문양이 있다. 스키타이계 동물문양은 스키타이에서는 주로 장신구의 문양으로 쓰였고 직물류에 사용된 것이 없는 것에 비해 직물류에 나타난 스키타이계 동물 문양은 노인우라의 모직물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다. 노인우라의 스키타이계 동물문양은 제6호 고분에서 출토된 모전(毛氈)의 가장자리에 고양이와 닮은 날개가 달린 커다란 피물인 그리핀이 큰 뿔이 달린 엘크의 등을 물어 습격하는 모습이나 황소나 사자처럼 보이는 짐승이 야크에게 머리를 숙인 채 양 뿔로 상대편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 정교하게 자수를 놓아 띠모양으로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키타이 문화권에서 동물 문양으로 사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후세계의 영혼을

인도하는 의미였기에 풍성한 조형표현의 소재로 썼다고 생각된다.

노인우라 직물류에 당초문양과 팔메트 문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당초문양은 그 기원이 이집트와 같은 중동 지방이므로 노인우라가 중국과 서역의 교류나 영향을 통해 전해진 문양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우라의 당초문양은 노인우라 직물류에 사용된 문양 중 가장 많이 나타나며 보상화문이나 인동당초문양의 형태로도 사용되었으며, 현대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으로는 폴 스미스의 코트 디자인에서 소매와 밑단, 앞여밈과 칼라에 자수문양으로 응용되기도 하였다.

노인우라의 팔메트 문양은 인마(人馬) 자수 모직물 하단에 사용된 문양으로 현대 디자인에서도 그 모양이 가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응용된 문양이다.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으로는 매튜 월리암스의 블라우스에 자수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인동당초문양과 함께 자수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한대(漢代)의 영향을 받은 문양으로는 산형뇌문(山形雷紋), 와문대(渦紋帶), 능형문(菱形紋)이다.

산형뇌문은 노인우라 경금(経錦)에 직조된 것이 있으며 이 경금의 직조기술은 유목기마민족인 노인우라의 자체 기술이기보다는 직조기술이 먼저 발달한 중국 한대(漢代)의 직조기술에 의한 것으로 교역품이나 중여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산형뇌문이 응용된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으로는 엠마누엘 웅가로의 니트 디자인에 산형뇌문이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와문대(渦紋帶)는 각진 네모형의 와문으로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된 문양으로 노인우라에서는 산형뇌문 위아래에 띠 모양으로 각각 떨어진 와문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각진 네모형의 와문대가 사용된 현대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으로는 존 갈리아노의 몽골 나담 축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드레스 디자인에 사용된 직물 문양인 능형문의 가장자리에도 각진 네모형의 와문이 띠모양으로 둘러져 있어 동양풍의 에스닉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노인우라의 묘실 피복포의 자수문양으로 사용된 능형문(菱形紋)은 중국 한대에서도 사용된 문양으로

노인우라의 묘실 피복포에 직조문양으로 사용되어 와문과 팔메트 문양이 함께 능형문 아래에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 능형문을 모티브로 한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으로는 존 갈리아노의 드레스에서 볼 수 있으며 능형문의 특징인 기하학적인 현대감각과 중국풍의 에스닉한 스타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노인우라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독자적인 문양으로는 회전하는 등근 와문(渦文)이다. 노인우라의 유물에서 회전하는 와문은 모전의 중앙 부분에 체인스티치의 바느질 기법으로 표현된 것과 묘실 피복포의 능형문 하단에 띠모양으로 와문이 자수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와문은 존 갈리아노의 드레스에서 디자인 모티브로서 대담한 크기의 형태로 응용되어 에스닉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복식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 중 그 모티브를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을 응용하여 현대 에스닉 스타일로 디자인하는데 다양하게 이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닉 스타일의 디자인은 현대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민족지향, 민속지향의 특징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현대 감각과 조화를 이루는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을 하는데 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12) René Grousset 著, 김호동, 유원수, 정재훈 譯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사계절, p. 53.
- 13) 杉本正年 著, 문광희 譯 (1995). *앞의 책*, p. 475.
- 14) 조규화 (1982). *服飾美學*. 서울: 수학사, pp. 183~185.
- 15) 변진의 (1994). *스키타이계 미술이 古代 龍紋에 끼친 영향*. 수원대학교논문집, 12(1), p. 178.
- 16) 위의 책, p. 173.
- 17) 황호근 (1979). *韓國紋樣史*. 열화당, pp. 105~106.

## 참고문헌

- 1) 윤명자 (1992).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6.
- 2) 신기철, 신용철 (1987).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3) 杉本正年 著, 문광희 譯 (1995). *동양복장사론고-고대 편*, 서울: 경춘사, p. 458.
- 4) 위의 책, p. 461.
- 5) 杉本正年 著, 문광희 譯. *앞의 책*, p. 467.
- 6) 털로 된 양탄자.
- 7) 杉本正年 著, 문광희 譯 (1995). *앞의 책*, p. 133.
- 8) 조원정 (2002).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속옷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2.
- 9) 동아 TV 2003 S/S Collection (2002). 동아TV, p. 14.
- 10) 梅原末治 (1960). *앞의 책*, p. 71.
- 11) 정수일. *앞의 책*, p. 314.